



그림 속의 집 기둥들은 모두 비뚤어져 보입니다. 그러나 그림을 비스듬히 세워 보면 실제로는 똑바로 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착각하여 집기둥을 바로잡겠다고 나선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집을 허물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고야 말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문제의 근원이 나에게 있음을 외면한 채 세상을 바로잡는다며 오히려 멀쩡한 세상을 허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 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마태 7:3) -

정규찬양

하나님이 돌보시는 곳

신명기 11:10-15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가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으리라”

솔직히 말해서 이스라엘이 들어갈 땅은 하늘에서 비를 기다리는 천수답입니다. 수리안전답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 도움 없이는 한 해도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1년 365일을 눈을 떴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살피 주셔야 했습니다. 지금은 하늘만 쳐다보고 목마른 비 한 방울 기다리는 척박한 땅, 그러나 하나님이 눈을 떴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1편으로)

| | | |
|--|--|--|
| 교회목표 생명의 예수 삶의 기쁨 | '이천년 교회생활' "주일에서 매일중심신앙" 갈보리 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심김과 봉사 *의명성 -명예 |
| 제 2권 3호 |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 2000년 1월 16일 |
| ☎262-3717/021-292-1639. ☐229A Ponsonby Rd. Ponsonby(Samoan Church) | | |

독자님! 대답해 주세요!

지나치게 교회 일만 합니다

Q) 지나치리 만큼 교회에 열심인 아내가 아이를 관리와 설거지, 청소등 가정일에 소홀하여 교회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던 저도 오히려 교회에 대한 원망함이 생깁니다. 새벽기도등 모든 교회행사에 참여하면서 가정을 소홀히 하는 아내에게 올바른 신앙 생활의 지침을 줄 수 있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A) 무엇이든지 지나치면 문제입니다. 성경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분명히 말합니다. 성숙한 신앙의 특징은 균형입니다. 원만하다는 것입니다. '가정과 신앙 생활에 균형'이 없다는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마치 가정은 신앙 생활과 별개인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사실상 가정과 신앙 생활은 두 개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교회의 활동만을 신앙 생활로 보는 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참된 신앙 생활은 제일 먼저 가정에서 나타납니다. 다음에는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일주일에 한두번 가지만 가정과 직장은 매일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신앙 생활의 모습이 먼저 나타나게 됩니다. 좋은 아내와 어머니가 되지 않고는 남편과 아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새벽기도에 가는 것은 사실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개 5시에 모인 후 6시 정도면 집에 오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것은 근본적으로 신앙 생활이 잘못된 것입니다. 남편과 아이들을 잘 돌보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이것을 소홀히 하면서 하는 교회 생활은 도피에 불과합니다.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4면에서 계속)

흐르는 땅이라 불러 놓고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 지금 사는 모습, 비록 비를 기다리는 갈라진 논처럼 되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확신이 있으면 젖과 꿀이 흐르게 됩니다. 매마른 삶에서 눈을 떼어 먼저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싸워서 이기는게 아니라 이겨놓고 싸우는 자들입니다.

영광송
Gloria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er

"Calvary"
1절:예배반주, 1.3절:다같이

다 같이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도자

*찬송
Hymn

27 장

다 같이

*성서교독
Response Reading

23 (시 98)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교회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찬송
Hymn

486 장

다 같이

기도
Prayer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마태 15:21-28

특송
Praising

주일학교
Sunday School

아동부

설교
Sermon

말을 가진 어미의 믿음

김성국 목사

설교후 기도
Prayer

찬송
Hymn

313 장
(마지막절은 일어써서)

다 같이

*헌금기도
Offertory Prayer

인도자

*응답송
Response Song

"좋은신 하나님"

다 같이

*위탁의 말씀

인도자

*축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친교실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으로 계속 됩니다)

| 일자 | 헌금봉헌 | 예배안내 | tea time |
|----|------|------|----------|
| 2 | 한 건 | 한 건 | 남성교우 |
| 9 | 김 효 | 김 효 | 여성교우 |
| 16 | 송정섭 | 송정섭 | 청년 |
| 23 | 최윤희 | 최윤희 | 남성교우 |
| 30 | 한 건 | 한 건 | 여성교우 |

'이천년 교회표어 "주일에서 매일중심신앙으로"
<실천사항>
*개인과 가정:매일 1/2성경읽기, 가정예배
*교 회:화요새벽기도회
*선 교:결식아동 3배지원, 해외선교지원

<등록규정>
*3주간 예배,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유로운 등록결정 판단을 위해
3주간 등록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예배안내 : <주일> 1:30pm

<목요성경공부> 7:30pm

교회소식

1.2000년 신앙생활 목표와 표어 "주일중심에서 매일중심으로"

*실천사항

- 1)개인: 매일 성경 1/2장 읽기
- 2)가정: 가정예배 정착
- 3)교회: 화요새벽기도
- 4)선교: 결식아동지원 3배 증가 지원, 해외선교 지원

2. 가정예배의 기쁨

매일신앙의 중심인 가정예배를 드려보시면 가족을 통해 주시는 행복을 느껴 볼 수 있습니다.

3. 직분임명

1월 마지막 주일을 직분자 임명주일로 지킵니다. 함께 섬기는 직분자 상(像)을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4. 야외예배

1월 마지막 주일에는 야외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의 방학을 마무리하고 아직 서로 잘 모르는 교우들의 친교를 위한 야외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여성교우들의 점심식사를 위한 토의를 tea time시간에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소: 다음주에 선정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5. 등록하셨습니다.

*김효권,이영주 집사 가정(상현,봄이) (등록 5)

☐ 28A Shakespeare Rd. Milford.

☎ 486-7798(H) 373-4598(S)

*조순정 집사 가정(조순정 집사. 상욱,미리) (등록 6)

☐ 7 Lambrown Dr. Glenfield

☎ 441-7557

6. 새벽기도회

매주 화요일을 새벽기도회 드리는 날로 지킵니다.

시간: 매주 화 6:00am

장소: 본당

7. Tea time 시간에 청년, 청소년들은 한 건 성도와 함께 잠시 모임을 갖겠습니다. 장소: Hall